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킨
세 명의 70인 제자
-복음으로 여는 빌레몬서-
창세기 45:4-5, 빌레몬서 1:1-6**

정윤돈 목사님

* **창45:4-5**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 **몬1:1-6**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밋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밋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우주만물을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영원토록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가지, 12가지 속에 있는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해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교회, 후대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다 할 수 있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감사하다. 시작과 끝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복음을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얼마나 갈등이 많고 답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화되지 않아서 헛갈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한심하다. 복음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단 0.1초만 역사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텐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거리는 것이 안타깝다. 맛있는 음식을 옆에 두고 ‘배고파’하는 것과 같은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 이것을 체험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요즘 수상레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생명 살리는 것

도 전문성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구명조끼를 입을 뿐만 아니라 잡고만 있으면 뜬다. ‘생명 살리는 것도, 구조하는 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구나’ 생각했다. 여러분의 각 분야에서 생명 살리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있다. 알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다. 내가 복음과 복음화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 우겨싸임을 당해도, 사자 굴에 던져져도 응답받는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요셉은 복음이 영혼에 각인되고 마음에 뿌리내려서 체질화된 70인 제자였다. 복음화된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다. 여러분도 복음만 붙잡고 있지 말고 복음화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화되지 않으면 다른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오히려 빼앗아 가신다. 하나님이 사랑 하셔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알고 결론내기를 축원드린다. 그래서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백하였다. 빌레몬서에 나온 세 인물도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남은 자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정확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예수로 끝을 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0.1초 안에, 1초 안에, 하루 안에 끝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끝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모든 문제도 주께 맡기라. 이것이 응답받는 비밀이다. 길을 찾고 집중하는 것과 고민하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질문해야 한다. 복음화된 사람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지 유지된다.

오늘은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직자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이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 이 오네시모는 과거에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간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옥중 집중다락방을 통하여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 결국 복음 안에서 원니스된 이 세 사람은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이다. 여러분, 개인, 자녀, 해야 할 것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다. 주께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맡기라. 중심을 복음 안에 두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 내 중심을 복음 안에 바로 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 분명히 믿음으로 이끄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레몬서에 등장한 70인 제자 3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이다.

(1)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 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의 모든 율법주의적인 각인들이 복음의 각인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도록 기도하면 된다. 내 노력, 설득, 언변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70인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1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하여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다. 오네시모의 미래를 걱정해서 보내는 것이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 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역시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2)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네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이 역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은 이제 사소한 언행에 있어서도 복음적인 체질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것 같이 영접해 달라고까지 부탁하고 있다. 1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 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라고 정중히 부탁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완전히 그 성격과 인격과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완전히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완전복음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2. 두 번째 인물은 빌레몬이다.

(1)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하여 ‘우리의 사랑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모든 중직자들과 램넛들은 목사님들에게 사랑 받는 자요 동역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사실상 신앙생활의 절대목표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다.

(2) 계속해서 1장 2절에 보면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빌레몬은 미션홈과 지교회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전도자였다.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에게도 문안을 하고 있다. 신학자들은 자매 압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으로 보고 있고, 아킵보는 는 빌레몬을 수행하던 마부로 보고 있다. 빌레몬은 모든 가족을 미션홈 제자로 세웠던 것이다.

(3) 또한 1장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빌레몬은 주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준 분이 되는 모델적인 중직자였다.

(4) 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모든 믿음의 헌신과 교제가 전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제자였다. 1장 6절에 보면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5) 또한 빌레몬은 성도와 사도 바울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70인 제자였다. 1장 7절을 함께 보겠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더 나아가 빌레몬은 목회자에게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있는 참 제자였다. 빌레몬서 1장 21절에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6) 빌레몬은 또한 사도 바울의 식주인의 역할도 하였다. 1장 22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속소를 마련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음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어떤 분은 ‘내가 무슨 하숙집인가?’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이를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3. 세 번째 인물은 오네시모이다.

(1)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중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었다.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하고 있다.

(2) 그런데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다.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다.

(3) 이어서 1장 16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1장 15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장 15절에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그런데 노예신분이면서 주인에게 피해를 주고 탈출한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은 후 ‘사랑 받는 형제’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복음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줄 만기를 바란다. 1장 16절에 보면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옥에서 만난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용서하고 복음 전했는데, 종인 오네시모를 더 돌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5) 이 정도가 아니라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심복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복음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1장 12절에 보면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 목사님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느껴져야 한다. ‘저 사람은 내 심복이다.’ 여기에 기준을 두면 인정받게 되고 행복해진다. 이 땅은 똑같은 세상이지만 여러분이 응답받으며 살면 천국보다도 더 좋다.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은 교회와 현장에서 목사님들과 리더들의 심복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키는 70인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오늘은 CVDIP와 5력을 중심으로 빌레몬서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왜냐하면 CVDIP를 통해 5력이 회복될 때 빌레몬서에 등장한 세 명의 70인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각인, 뿌리, 체질까지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Covenant, 언약과 영력이다. 언약이 확실하게 회복될 때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된다.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나에게 성령이 역사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인내해야지.’ 이 때 어떤 사람이라도 수용, 포용하고 용서 할 수 있다.

2. Vision, 비전과 지력이다.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자 하는 비전이 확실하면 지적인 능력도 생기게 된다.

3. Dream, 꿈과 체력이다. 꿈이 확실한 사람들은 24시간 체력관리도 하게 된다.

4. Image, 이미지와 경제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직전도에 집중하는 성도들에게는 경제력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과 인력이다. 작은 말씀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된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면 된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셋팅하여 절대불가능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오네시모처럼 언약하고 죄 짓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배신하는 체질, 인격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주셔서 오직 은혜로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도 알게 하시고, 이제 복음화되는 삶에 대한 절대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70인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